



#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 치중

한국중공업(주)

**새** 천년의 밝은 해가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천년의 끝에서 큰 상채기를 남긴 IMF도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중공업(주)는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발전 사업을 인수하는 빅 딜에 성공하여 발전 사업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사업은 물론 해외 사업에도 관련 업체간 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선진 업체와도 전략적 제휴를 해야 격심한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천년에는 청정 에너지로서 원자력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발주가 서서히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금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미래 시장에서 선점할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 경영 혁신

2000년도는 한국중공업(주)의 중장기 경영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경쟁력을 갖춘 21C의 기업’이라는 비전을 구현해 내기 위해 「중기 MAP(Management Action Plan) Master Plan」이라는 경영 혁신 계획을 기획정하였으며, 그 첫 해인 2000년도에는 품질 개선, 지식 경영, 원가 개선 등 총 12개의 중점 추진 분야를 발굴하여 전원 참여에 의한 지속적 개선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2000년을 6시그마 경영 혁신 활동을 Tool로 접목하여 실질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경영 혁신에 도입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품질과 기술을 갖춘 21C 세계의 기업으로 진입해 가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 기술 개발

2000년 올해에도 한전이 주도하여 진행중인 1,400MWe급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 기술 제휴선으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을 표준 원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 기술들을 기술 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원자력 기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원자력학회 및 해외 기술 제휴선의 자문을 받아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1999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유리고화 설비의 실증 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이 설비를 안전성·신뢰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1998년부터 착수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일체형 원자

로(SMART) 연구 개발 사업의 주 기기(SG · CEDM 및 MCP)의 원형 및 치공구 설계/제작 분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간 많은 부분을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미자립 정비 분야 기술도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 진출

신규 원전 건설이 다소 활발하게 진행될 중국에서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국내 전력 그룹사 및 해외 기술 제휴선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1999년의 미국 Sequoyah RSG(증기발생기 교체)의 성공적 수주 및 사업 착수를 바탕으로 2000년에도 해외 선진 업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RSG 수주 확대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기 사업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완전 사업 수행

#### 1. 영광 5 · 6호기

1999년도는 영광 5 · 6호기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를 비롯하여 원자로 설비 기자재 중 약 50%를 공정 완료하였으며, 5 · 6호기 원자로는 금년 5월 및 11월에 영광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영광 5 · 6호기 프로젝트는 기자



2000년도는 한국중공업(주)의 종장기 경영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경쟁력을 갖춘 21C의 기업'이라는 비전을 구현해 내기 위해 「중기 MAP(Management Action Plan) Master Plan」이라는 경영 혁신 계획을 기획정하였으며, 그 첫 해인 2000년도에는 품질 개선, 지식 경영, 원가 개선 등 총 12개의 중점 추진 분야를 발굴하여 전원 참여에 의한 지속적 개선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재의 순조로운 공급으로 설치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특히 제작 및 출하시 품질 실명제를 적용하여 고품질의 기자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다.

2000년도에는 기자재 공급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발전소 준공시까지 영광 현장 사무소를 중심으로 기자재 설치 공사, 하지 처리 및 시운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2. 울진 3 · 4호기

울진 3호기는 1998년 준공되어 상업 운전중에 있으며, 4호기는 1999년 말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다.

2000년에는 울진 3 · 4호기의 성공적인 연속 운전을 위하여 완벽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기자재 성능이 충분

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3. 월성 3 · 4호기

월성 3 · 4호기가 1999년 9월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함에 따라 새해부터는 월성 2호기와 더불어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 4. 울진 5 · 6호기

금년에는 기자재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납기 준수와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중공업(주)가 최초로 수행하는 토건 분야에서는 10월 1일 6호기 본관 최초 콘크리트 타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말에는 창원 공장에서 제작중인 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5호기용이 2001



년 납품을 앞두고 수압 시험 및 정착 가공 등 마지막 제작 단계에 이를 것이다.

### 5. 북한 경수로

한국 표준형 원전을 참조 발전소로 하는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에서 한국중공업(주)는 1998년 7월에 KEDO 및 주계약자인 한전으로부터 주기기(원자로 설비/터빈 발전기) 공급자로 선정되었고, 또한 한국·미국·일본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 범위를 확정한 바 있다.

1999년 12월 15일 KEDO·한전 간의 주계약(Turnkey Contract) 체결과 연계하여 한전·한중간의 협력 계약, 한중 및 국내외 하청사간의 하청 계약 체결을 하였다.

금년에는 계통 설계 분야의 설계 업무의 시작과 연계하여 기자재 제작 분야에서는 핵심 기기인 원자로 용기(R/V) 및 증기발생기(S/G)의 소재 제작이 시작될 예정이며,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가능한 보조 기기 계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KEDO 프로젝트를 통해 명실 상부한 발전 설비 전문 업체로서 주기기·보조 기기 뿐만 아니라 시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미국 Sequoyah# 1 RSG 공사는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한 공사로서, 이는 한국중공업(주)의 기술력과 품질이 원자력 기술의 원천지인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한 매우 의미있는 공사이다.

### 6. 진산 PhaseⅢ

중국핵총공사가 발주한 본공사는 700MW급 중수로 2기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한국중공업(주)는 핵증기 계통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가압기·열교환기 등 19종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D<sub>2</sub>O Supply Storage Tank를 필두로 4종 9품목을 납기 내에 납품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였다.

2000년은 대부분의 기기를 납품하는 해로써 고품질의 기기를 납기 내에 완료함으로써 한국중공업(주)의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한편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Sequoyah# 1RSG

본 공사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한 공사로서, 이는 한국중공업(주)의 기술력과 품질이 원자력 기술의 원천지인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한 매우 의미있는 공사이다.

1999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8월에 증기발생기 4기를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주)는 본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추가 RSG 및 기타 원자력 기기의 미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다. ☺